

-(으)ㄹ지도 모른다

~할지도 모른다, 어쩌면 ~일 수도 있다

확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때 씁니다. 경고나 조심스러운 말투로 자주 씁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모음으로 끝남	-ㄹ지도 모른다	가다 → 갈지도 몰라요
자음으로 끝남	-을지도 모른다	먹다 → 먹을지도 몰라요
ㄹ로 끝남	-지도 모른다	만들다 → 만들지도 몰라요
명사	일지도 모른다	학생 → 학생일지도 몰라요
과거	-았/었을지도 모르다	가다 → 갔을지도 몰라요
ㅂ 불규칙	-을지도 모른다	어렵다 → 어려울지도 몰라요
ㄷ 불규칙	-을지도 모른다	듣다 → 들을지도 몰라요

■ 언제 쓰나요

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염두에 두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.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, 언급할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뜻만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-(으)니까와 함께 경고하는 문장에 자주 나옵니다.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

완곡하게 말할 때도 씁니다. 단정적으로 말하면 너무 확신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, -(으)ㄹ지도 모르다로 부드럽게 말하면 틀릴 여지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. 표현의 구성 자체가 이 뜻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. 모르다는 알지 못하다라는 뜻이므로, 전체는 “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”라는 의미가 됩니다. 확신의 정도는 그렇다고 믿는 쪽에 가까운 -(으)ㄹ 것보다 낮습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출발하면 늦을지도 몰라요.
- 2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
- 3 그 사람은 벌써 집에 갔을지도 몰라요.
- 4 이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.
- 5 저분이 새로 오신 선생님일지도 몰라요.
- 6 시험에 이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꼭 외우세요.

■ 비교

-(으)ㄹ 수도 있다

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. 중립적이어서 글이나 격식 있는 설명에도 잘 어울립니다. -(으)ㄹ지도 모르다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불확실함이 더해지기 때문에 경고에 더 잘 맞습니다.

이 약은 졸릴 수도 있어요. (알려진 부작용) / 이 약은 졸릴지도 몰라요. (혹시 몰라 주의를 주는 말)

-(으)ㄹ 것 같다

말하는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믿는 쪽에 가깝습니다. 단순한 가능성에 머무는 -(으)ㄹ지도 모르다보다 확신의 정도가 눈에 띄게 높습니다.

비가 올 것 같아요. (구름을 보고) / 비가 올지도 몰라요. (잘 모르지만 대비하라는 뜻)

-(으)ㄹ지 모르다

도를 빼도 되며 의미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. 도가 있으면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는 느낌이 있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립니다.

늦을지 몰라요. ≈ 늦을지도 몰라요.

■ 주의

✗ 갈지도 몰랐어요.

○ 갔을지도 몰라요.

‘갔을지도 모른다’처럼 과거의 가능성을 말할 때는 과거 시제를 모르다가 아니라 앞의 동사에 붙입니다. 모르다에 붙이면 “몰랐다(알지 못했다)”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. 과거 추측을 표현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.

✗ 학생지도 몰라요.

○ 학생일지도 몰라요.

명사에는 어미가 바로 붙지 않습니다. 먼저 서술격 조사 이다를 붙여 일지도가 됩니다.

✗ 만들을지도 몰라요.

○ 만들지도 몰라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미 ㄹ이 있으므로 을을 붙이지 않습니다. 살다, 알다, 놀다도 마찬가지입니다.